

## 제127차 UIA 이사회 참석 보고서

Attendance Report of 127th UIA Council

글. 이근창\_ Yi, Kun-chang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 부회장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 UIA 4지역 이사

제127차 UIA 이사회가 페루 수도 리마 해변에 위치한 Wyndham Costa del Sol Hotel에서 2015. 11. 6 ~ 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회장 Esa Mohamed를 포함한 사무총장, 재무관, 각 지역부회장, 전임회장, 각 지역이사 와 대리이사, 교육위원장, 실무위원회위원장, 설계경기위원장과 공동위원장 등으로 총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가 포함된 제4지역에서는 부회장인 필리핀 Yolanda Reyes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중국, 인도, 호주 대표와 본인과 한영근 대리이사가 참석하였다. 둘째 날에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한종률 조직위원장, 이건기 전서울시 부시장, 정유승 국장 그리고 조직위와 동행한 서울시과장,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 이사회는 FPAA(판아메리카 건축사 연합회)이사회와 동시에 같은 건물 내에서 개최되었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를 위해 특별히 이사회에 참석한 조직위원회는 양 이사회를 번갈아가며 개최 예정 장소와 참가비, 사전 등록의 혜택, Website Launching, 법인 설립 준비 등 진행상황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조직위원회의 집요한 요청으로 이사회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된 FPAA Forum 개막식 세션 말미에 2017 서울대회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많은 관심을 보인 FPAA 회원국 대표들과 짝짜인 행사시간을 배려해준 페루 건축사협회에게 감사드린다. 세 번에 걸친 서울대회 홍보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많은 질문에 명쾌하게 응해준 대표단의 열정과 한국을 미지의 동방에 나라로 알고 있는 많은 아메리카 대륙의 건축사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었다.

## ■ 이사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 제시된 이사회 안건은 쿠바와 에티오피아의 재 입회에 대한 안건과 페루 건축사 협회가 추가 요청한 Caral Charter검토가 추가되어 승인되었다.
- UIA CPD Program 작성을 위한 University of Athens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
- 지중해와 아프리카 지역의 TV 매체인 Inter Design과 UIA설계 경기 작품과 유명건축사와의 대담 등 건축 관련 TV Show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하다. 이 계획은 전 사무총장 발마키가 제안한 것을 구체화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UIA와 건축사의 위상을 홍보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청률에 따른 수익은 일부 기증 받기로 했다.
- 전 이사회에서 .archi 도메인 활성화를 주문했으나, 각 회원국의 참여 부족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총수익의 10%를 지원받기로 한 수입이 없다. 회원국의 더 많은 UIA 재정적 보탬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 국제 경제 위축으로 회비 미납국이 많아지고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임회장단에서 제안한 Solidarity Fond(단합자금) 모금에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 COP 21 회의를 통해 UIA의 핵심 역할을 찾았고, 우리의 열정을 모아 지구온난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수석부회장은 Hayder Ali, 제2부회장은 David Falla를 선임한다.
- 설계 경기 위원회 Co-Chair를 Ms. Regina Gonthier로 교체한다.
- 제1지역에서 개최한 Riverside Project가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다. 코펜하겐, 런던으로 이어지는 본 사업이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도 지속되기를 원한다.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Summer School과 더반에서 시행했던 Street Architecture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이어져 지속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사항은 제1지역 부회장 David Falla가 주둔국 담당 이사인 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신입회원 가입에 노력해준 3지역 부회장 Carlos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UIA가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WP를 통해 더 구체화해야 한다.
-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BUET 대학에서 개최된 UN-HABITAT는 좋은 반응을 보였고, 회원국에서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 전임회장에게 전달되는 국제행사의 Message는 꼭 현 회장단에 전달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가칸상, UN-HABITAT, UNESCO 관련, COP는 꼭 현 회장명으로 답신이 될 수 있게 협조 바란다.
- 2015년 재정은 총수입이 예산보다 168,687유로 적은 455,600유로가 입금되었고, 미납회

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입 대비 지출은 회장단의 경비를 많은 부분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2016 예산은 865,000유로로 승인 되었다.
- 2015년 회비는 '15년 12월 말까지, 2016년 회비는 '16년 6월까지로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은 일시제명하는 것으로 한다.
- 2017 대회 유치 비용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납부 바란다.
- 국가 재정적 압박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가 특히 이태리와 회원 탈퇴한 독일에 대해 재 참여를 위한 지역 부회장단의 노력을 요구한다.
- 4지역에서는 라오스와 인도네시아가 '15년 회비 미납 회원이다.
- 새 회원 확충을 위한 재무관이 제안한 회비 1/2을 입회시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과 회비 미납으로 자격 정지된 회원은 미납된 연회비의 미납 횟수에 1/4을 적용하여 재입회 하는 정관 개정은 차기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한다.
- 재무관이 제안한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하는 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소위원회는 Annetee Blegvad가 위원장으로 전 UIA회장 Albert Dubler, S. Tiganna 그리고 본인이 지명되었다.
- Solidarity Fund(단합재정) 모금을 위해 New Letter와 Website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많은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 총회 유치국에서 모금하기는 Sponsorship Fund와 단합 재정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기 바란다.
- UIA는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①nify, ①nfluence, ①dvance 정신으로 각 지역 건축사의 통일된 목소리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정책개발로 건축사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각 회원국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UIA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바란다. 이 안건은 사무총장인 Thomas Vonir에게 UIA운영과 역할이 국제적 대응에서 나타남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혁신적 방안과 구조적 개편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 제안 하도록 위임한다.
- PPC에서는 18개의 Guideline과 14의 Policy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고 건축사의 논쟁(Dispute)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 차기 이사회 또는 별도의 교육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교육과 실무의 연계를 중복/상충되지 않게 조치 바란다.
- 24의 Work Programs이 서로 중첩되고 Director들의 활동여부에 따로 격차가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구체적 대안 제시 바란다. WP의 통합과 재구성은 호주의 P.Mould와

사무총장이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한다.

- 이사가 Director가 아닌 경우 상호 소통에 문제가 많으므로 해결을 위해 이사들이 노력해야 한다.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 대한 보고에서는 UIA2017Seoul.archi website가 2016년 1월에 개설될 것이며, On-line 등록은 3월부터, 사전 등록과 단체 등록의 혜택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2015년 유치 비용의 미납의 요인이 조직위원회의 법인화가 늦어 발생했으며 설립하면 즉시 납입하겠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 2016년 1월 29~30일에 조정이사회가 임원회의와 함께 서울에서 있다.
- 차기 이사회는 케냐의 라이로비에서 2016년 3월에 개최한다.
- 중국의 Liang Sicneng 건축상은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UIA와 공동으로 하고 그 상의 상금은 15,000USD로 한다.
- Caral Charter의 서명식에서 그 내용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항목 특히 Article 11,12 번은 UIA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각 참여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서명하기로 자율에 맡긴다.

이틀에 거친 긴 회의는 사무총장의 능숙한 회의진행으로 7일 오후에 마칠 수 있었다.

